FTA·복지·경제… 대한민국의 내일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외 지음

“한·미 FTA를 하면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 오르고 일자리도 몇 퍼센트 늘어난다고 말하는 것, 그거야말로 괴담입니다.”

속시원하다. 누구나 궁금했을만한 의문들에 대한 명쾌한 대답자들의 해석, 그래서 읽을만한 책이다.

19일 열린 출판기념회서 이종태·장하준·정승일(왼쪽부터)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키 제공〉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지난 2005년 발간된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속편 격이다. 당시 대담자로 나섰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에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및 운영위원, 이종태 시사IN 경제·국제팀장 등도 등장한다. 7년 전에 나왔던 ‘쾌도난마 한국경제’와 중복된 내용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읽어볼 만 하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 시기에, 정치권이 표심을 얻기 위해 ‘닥치고 복지’라는 형식으로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FTA를 체결하면 정말 국민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까.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가 가능할까. GM이 망한 게 고임금과 노조 때문일까 등. 민감한 주요 이슈와 경제 상황 가운데 누구나 한번은 궁금했을만한 질문들을 짚어내고 쉽게 풀어낸다. 나름 제시하는 대안도 들여다볼만하다.

우선,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 논쟁에 대한 정치권의 ‘사탕발림식’ 논리를 가차없이 해체한다. 장 교수는 “진심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에게 증세가 필요하다고 적극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 올리자고 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증세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보다 ‘세금은 공동 구매 자금’이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의 정서를 바꾸겠다고 생각해야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세금을 ‘빼앗기는 돈’이 아닌, ‘같이 쓰는 돈’으로, 복지 지출을 ‘공짜’가 아닌, ‘공동 구매’로 보는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무상 급식’논쟁도 비켜가지 않는다. 지난해만 해도 야권에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여권에서는 필요한 사람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장 교수는 “가난한 사람도 부가가치세는 다 낸다. 그런데 어째서 그게 공짜냐”, “보수 세력의 무상 급식론 반대론 중 하나가 ‘왜 재벌 아들까지 공짜로 밥주냐, 부자 복지다’라는 건데 이것도 틀린 말이다. 부자들은 누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 같은 복지 혜택을 받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받는 것이니 보수 세력에서 말하듯 부자 복지가 아니다”고 지적한다.

FTA에 대한 날선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시장 개방으로 한국 농업이 대단히 불리한 처지로 몰린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한국 서비스업이 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을 키울 거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농업도 외부의 자극을 받아 획기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냐”고 꼬집는다. 한 발 더 나아가 “설사 투자자-국가 소송제 같은 게 없다고 해도 한국이 미국이나 EU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건 엄청난 패착”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이외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를 제안하고 있다.

저자들은 “스웨덴도 40여년간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 지금의 복지국가가 된 것”이라며 “우리도 ‘복지’를 장기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부키·1만49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완벽하려고 노력 했더니 남들과 같아졌다

‘완벽주의의 함정’

클라우스 베를레 지음

엄마 뱃속부터 두뇌 계발을 위해 모차르트를 듣고, 몸에 좋은 유기농 급식을 세 살 때 먹고 영어 유치원에 다닌다.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명문대학에 진학한 뒤 각종 자격증, 인턴십, 교환학생과 해외 봉사 등을 통해 완벽한 스펙을 쌓는다.

결국 대기업에 입사하지만 빠른 승진을 위해 일찍 출근해 더 늦게 퇴근하고 주말까지 반납한다. 완벽한 짝을 만나기 위해 결혼 정보회사에도 등록하고, 태어날 2세와 퇴직 후를 위해 각종 보험과 펀드 상품에도 가입한다. 조금 이른 듯 하지만 묏자리도 예약해둔다. 완벽한 삶에 대한 열망과 질주는 21세기 신앙이 됐다.

완벽주의는 왜 현대사회의 신앙이 됐는가. 완벽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인가.

클라우스 베를레는 ‘완벽주의의 함정’이라는 책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이질 않는 완벽주의의 모순을 파헤치고 폭로한다. ‘남과 다르게’ 완벽해지려 노력한 결과, 모두 ‘남들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완벽주의의 모순’을 고발한다. 한 명만 의자 위에 올라서면 남보다 돋보이겠지만 모두가 의자 위에 올라서면 다 같이 평범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완벽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정작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적당히 좋은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나은 법이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약점을 교정하기보단 강점을 더 키우라”고 권한다.

〈소담출판사·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명작의 흔적을 찾아 떠난 여행

‘소설가의 여행법’

함정임 지음

그녀가 뉴욕에 갈 때면 꼭 챙겨 가는 게 있다. 폴 오스터의 소설 ‘브루클린 풍자극’과 ‘뉴욕 3부작’이다. 로맹 가리의 소설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는 그녀를 페루 리마로 이끌었다.

카잔차키스의 고향인 그리스 크레타 섬을 찾았을 땐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 조르바가 원시의 춤을 췄을법한 해변을 떠올린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라는 비문이 적힌 카자차키스의 묘지 앞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냄새를 맡는다.

소설가 함정임이 ‘소설가의 여행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작가의 말을 빌자면 ‘단 하루도 소설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단 하루도 여행을 떠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소설 속으로 파고든 보고(報告)이자 소설 밖으로 떠난 여행’이다.

그녀는 오르한 파묵의 ‘순수 박물관’을 찾아 이스탄불로 발길을 재촉하고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과 함께 한 아일랜드의 더블린, ‘아웃 오브 아프리카’와 ‘킬리만자로의 눈’의 배경인 아프리카 케냐 등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또 박민규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를 통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등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천명관의 ‘고령화 가족’ 등 동료 소설가들의 작품도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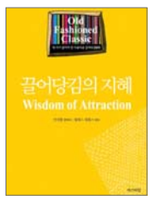
저자의 글쓰기는 책의 배경이 된 ‘그곳’을 찾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로망을 대신 채워주고, 소설을 다시 펼쳐 보게 만든다. 〈예담·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공의 동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끌어당김의 지혜’

월러스 워틀스 지음



성공은 성공을 끌어당기고 실패는 실패를 끌어당긴다.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가치를 담은 59권의 책들을 엮어내는 시리즈의 하나로, 긍정의 힘을 알려준다.

월러스 워틀스는 ‘끌어담김의 지혜’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성공의 동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현명하게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 성공으로 이끄는 ‘끌어당김’을 설명하고 ‘끌어당김’을 이용해 자신을 끊임없이 창조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강렬한 ‘끌어당김’의 메시지가 머리와 마음, 몸으로 퍼져가고 뚜렷한 행로를 찾아갈 때 성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패한 뒤 낙담하고 어깨가 축 처진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내용들이 담담하게 담겨 있다. 〈더 스타일·59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라흐마니노프 전주곡이 흐르고…

‘죽음의 전주곡’

나이오 마시 지음

애거서 크리스티 등과 함께 클래식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여성작가로 꼽히는 나이오 마시의 소설이 국내 처음으로 소개됐다.

이번에 출간된 ‘죽음의 전주곡’은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을 배경으로, 연극 무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막이 오르고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이 흐른 후 한 독신녀가 시체로 발견된다. 열렬한 사랑에 빠진 남녀,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 헐뜯기 좋아하는 여인들, 덜렁대는 의사, 매혹적인 유부녀 등 연극 속 등장인물은 모두 치명적인 용의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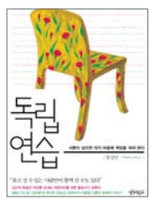
애거서 크리스티에게 마플이, 코난 도일에게 셜록 홈즈가 있듯, 나이오 마시의 소설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는 ‘스페인 귀족과 수도사를 합해 둘로 나눈 듯한 조용한 남자’ 로더릭 앨린 경감과 그의 친구인 기자 나이젤 베스게이트다. 〈검은숲·1만2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른아이’들이여 당당한 홀로서기를 시작하라

‘독립연습’

황상민 지음



정말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나’라는 존재다.

다양한 심리학 관련 서적들을 집필한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펴낸 ‘독립연습’은 심리적 독립과 자유를 겁내는 ‘어른 아이’를 위한 홀로서기 설명서로 ‘나를 찾아가는 길’에 대해 알려준다.

황교수가 MBC 라디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나눈 상담 내용을 뼈대로 해 출간한 ‘독립연습’은 무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밥벌이에 발목이 잡히기 일쑤인 사람들, 독립된 자아를 꿈꾸면서 현실적으로는 종속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침서다.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남들이 일을 맡기면 홀로 남아 야근을 하는 남자,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지 언제나 불안해하는 여자, 왜 내겐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걸까 고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한다.

책은 모두의 마음을 뒤흔드는 관계맺기의 괴로움, 갈등, 삶의 고단함,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나’에게서 찾으라고 독려한다.

〈생각연구소·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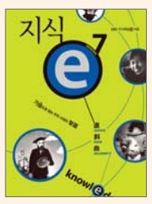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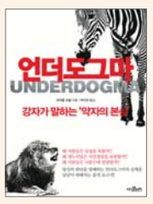
▲북성로의 밤=‘도모유키’로 제10회 한겨레문학상을 수상 후 ‘능소화’, ‘유이화’, ‘아버지의 오토바이’ 등 꾸준히 장편소설을 발표해온 조두진의 신작 소설이다. 1940년대 대구 북성로에 있던 ‘미나카이 백화점’을 배경으로 배달부 노정주와 백화점 사장의 딸 나카에 아나코의 사랑, 노정주의 사촌형으로 순사로 근무 중인 노태영과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의 형마저 죽여야하는 노치영 형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겨레·1만2000원〉

▲사물과 나눈 이야기-사랑 아닌 것이 없다=동화작가, 번역가로 활동중인 이현주 목사가 돌, 쓰레기통, 집게, 떨어진 꽃 등 주변의 사물들과 마음속 대화를 나누며 깨우친 것들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안경, 연필, 부채, 빈의자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물들과 나눈 속깊은 대화를 통해 삶의 지혜를 알려준다. 〈샨티·1만2000원〉

▲지식 ⓔ7=지난 2005년 첫방송을 시작한 EBS의 인기 프로그램 ‘지식채널 ⓔ’를 통해 방영됐던 내용을 모은 책이다. 시리즈 7번째인 이번 책의 테마는 ‘직선과 사선 그리고 곡선’. 간송 전형필을 통해 문화유산을 지켜낸 올 곧은 정신을 기리며 루퍼트 머독을 통해 미디어법의 문제를 짚어낸다. 또 대학등록금, 한진중공업, 강정마을 사태, 팟 캐스트, 제주도 영리병원,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 이슈를 언급한다. 〈북하우스·1만3800원〉





▲언더도그마=미국 보수단체 피타피 패이트리어츠의 전략가인 저자가 언더도그마 현상의 본질을 밝힌 책으로, 9·11테러와 반미주의, 대형마트 반대운동, 미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의 저변에 있는 언더도그마를 포착하는 한편, 언더도그마를 이용해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마다 않는다. 언더도그마란 약자는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하고 고결하며, 강자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믿음을 의미한다. 〈지식갤러리·1만3000원〉

▲유랑자=‘환생’을 소재로 삼아 정찬이 8년만에 펴낸 신작 장편소설로, 탄생과 죽음은 있는가 묻는다. 소설은 이브라힘의 진술을 바탕으로 2000년 전 예수 시대와 1000년 전 십자군 전쟁 무렵, 그리고 최근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환생이라는 다리로 연결하며 전개된다. 생을 거듭해 유랑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동서양의 여러 종교와 사상을 넘나들며 삶과 죽음을 탐구한다.

〈문학동네·1만2000원〉

▲비성년열전=저자 신해욱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현대문학’에 14회에 걸쳐 연재한 에세이를 모아 엮은 것으로, 인간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성년과 성년이 될 것을 기대하는 미성년 사이의 비성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현대문학·1만3000원〉

어린이 책꽂이

▲연표 한국사=구석기시대부터 현대까지 연표를 따라가며 떠나는 역사 기행서다. 우리나라 역사를 석기시대, 고조선과 철기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항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등 총 9장으로 구성했다. 아이들이 스티커를 직접 붙여가며 시대별 특징을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린북·1만3000원〉

▲비=갈데콧 아너 상을 두번이나 수상한 도널드 크루즈의 그림책이다. 글을 극도로 절제하고 그림만으로 비오는 정경을 담아냈으며 특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빗방울이 아닌 ‘Rain’이라는 글자로 표현해 문자를 이미지화했다. 빨강, 파랑, 노랑 등 생생한 컬러와 심플한 선·면도 눈길을 끈다.

〈시공주니어·8000원〉

▲하리하라의 생물학 원정대=과학 분야의 스테디 셀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의 초등학생용 만화 버전이다. 호기심 많은 세 친구가 하리하라 박사의 생물학 연구실에 우연히 들어가 가상 체험 장치에 탑승, 탄생과 죽음, 성장과 노화 등 생명의 신비의 대해 배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을 쓴 이은희는 하리하라라는 필명으로 다양한 대중 과학서를 쓰고 있다. 〈궁리·1만원〉

▲서로 도우며 살아요=공생하며 살고 있는 동물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책이다. 물을 찾아 이동할 때 사자나 하이애나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초식동물인 얼룩말이나 영양 등과 함께 다니는 타조는 대신 키가 크고 눈이 좋아 얼룩말 등이 풀을 뜯는 동안 망을 봐준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아이가 자라면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겨야만하는 소중한 말들을 모은 그림책이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잘 먹겠습니다, 나 정말 화났거든, 똥 마려워요 등20여개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맹&앵·1만2000원〉